

학원강의 활용법

강사가 전하는 수험생활

이준권 변리사

1. 들어가며

합격자 발표하는 날 아침, 이불안에 들어가 도저히 합격자 확인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했고, 다시 공부를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잘할 자신이 없었기에, 결과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간절함과 기대를 가져볼 수 있도록 한 제 수험생활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 수험정보

- (1) 회사에 다니다 일을 그만 두고 시험공부를 시작하여, 다소 늦은 나이에 진입 하였습니다. 1차 시험에 2번 불합격하고, 3번째 합격하였으며, 이후 2차 시험을 기득으로 합격하였습니다.
- (2) 이처럼 제 수험생활은 다소 늦은 나이에 시험에 진입한 점, 2차 시험보다 1차 시험이 더욱 부담스러웠고 부진정동차에 도전해보았다는 점, 종합반을 통해 기득을 준비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3. 1차시험

가. 첫 번째 1차

2015.07에 진입하였고, 보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서를 회독한 다음 객관식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결국 60점 중반의 점수를 받고 불합격 하였는데, 패인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회독수에 집착하였던 점

‘기본서 10회독, 객관식 5회독 하면 합격’ 등의 이야기를 듣고, 회독 수에 집착한 나머지 정확한 이해와 암기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빠르게 회독해야 한다는 압박에 이해가 덜 된 부분도 그냥 읽고만 넘어가는 식으로 공부했고, ‘익숙한 부분’ 또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 만 반복해서 보게 되고, ‘약한 부분’ 또는 ‘부족한 부분’ 에 대해 시간 투자를 많이 못 하였습니다.

2) 혼자 공부 했던 점

집 앞에서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저의 실력과 진도 등을 체크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더라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여럿이서 공부를 하지는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모의고사 등의 테스트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두 번째 1차

2016.08부터 다시 1차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60점 후반의 점수로 2문제 차이로 불합격하였습니다. 이때의 패인으로는 “방심” 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6.03 ~ 2016.07 까지 2차 공부를 미리 해보았는데, 특허와 상표의 경우 gs 수업을 통해 사례 문제도 풀어보고 판례도 조금 읽어 본 것으로 실력이 늘었다고 자만했습니다. 산재의 경우 2차와 1차의 접근방법이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2차 기본서로 1차 대비를 하는 등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혹여나 1차를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2차 공부와 1차 공부는 완전히 분리하여 1차 시험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세 번째 1차

1. 2017.07부터 1차 공부를 시작하였고, 80점대 점수를 받아 합격하였습니다.
2. 이 시기에는 스터디를 구해서 공부했습니다. 지식을 얻겠다는 것 보다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도 해보고 정보도 얻을 목적이었습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보며 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었고, 생각해 보지 못한 공부 방법 및 학원 강의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자연과학의 경우, 평소 공부하였던 것보다 1-2시간 더 시간 투자를 하였습니다. 물리와 화학은 시중의 모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했고, 생물은 시험에 출제되는 범위의 내용을 A4용지에 4-5장으로 요약정리하고 그것만 달달 외웠습니다. 지구과학의 경우 기본서 외에도 문제집을 한 권 더 풀어보니 좀 더 이해와 정리가 잘되었습니다.
4. 민법 또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자 노력하였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도 구해서 풀어보았는데 도움 되었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도 수강하였는데 문제를 많이 풀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강사님께 질문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5. 특허, 상표의 경우 조문을 꼼꼼하게 읽었고, 도해를 통해 지엽적인 부분도 체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객관식 공부는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1차 대비용 요약서로 공부했습니다.

라. 소결

누군가에게는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1차 시험에 두 번이나 좌절하며, 포기를 생각해 보기도 하였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였습니다. 마지막 1차 시험을 보고 카페에 앉아 채점을 하였는데, 여유 있는 점수를 확인한 후 집에 가는 길에 몽클하여 한동안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1차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직 공부의 가속도가 붙지 않았고, 공부 요령이 부족해서이지 결코 개인의 역량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2차시험

가. 서설

1차 시험에 불합격한 후 부진정 동차에 도전하였던 과정을 말씀드리고, 이후 동차와 기득 수험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부진정 동차

1) 2차 시험 보듯이 준비

부진정 동차에 도전하신다면 2차생들과 마찬가지로 준비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무작정 학원 수업을 들을 것이 아니라, 어렵겠지만 최대한 실제 2차 시험을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셔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6-7월까지 시간 내에 답안지를 채우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을 강력 추천 드립니다. 2차 공부를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사례 문제도 풀어보고 판례도 많이 읽어보게 될 것인데, 당해 연도에 실제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마음에 좀 더 고통을 요하는 쓰기에는 소홀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쓰기에 대한 부담을 극복한다면 이후에 아주 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에, 그것을 목표로 삼아 공부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2) 스터디

친구와 민소 스터디를 한 달간 진행하였는데, 2시간 동안 답안지 채우는 것에 있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례집을 한 달에 1회독 분량으로 나눈 다음, 해당 범위를 미리 암기 후 그날 밤 무작위로 몇 문제를 골라 2시간 동안 써보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암기 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으나, 미리 외웠던 내용을 쓰는 것이기에 2시간에 16페이지를 채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한 달간 반복하니, 시간 내에 답안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필속이 요구되며,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암기해야 하는지 등의 감이 생겼습니다. 다음 달에 민소 실전gs를 들어보았는데, 2시간 동안 16페이지를 채우고 있는 저를 보며, '어라?' 하며 신기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욱 신기했던 것은, 민소 스터디였음에도 쓰기에 대한 감이 생기자, 특허와 상표 모두 쓰기 실력이 함께 올라가 답안지 채우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던 점입니다. 정말 도움이 되었던 방법이기도 쓰기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다. 동차(만:60/ 특:50/ 상:45/ 다:63)

	4월	5월	6월	7월
민사소송법	사례	실전	실전	
특허법	기초	실전		
상표법	기초		실전	
디자인보호법		실전	실전	

1) 반드시 동차 합격!

수업시간에 ‘동차 때 죽을 만큼 열심히 해야, 기득 때 겨우 붙는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정말 맞는 말이라 생각하며, 동차 때 열심히 해 둔 것이 기득 때 자신감을 가지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는 1차 시험이 3월에 있었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4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에 더욱 타이트하게 공부해야 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기본강의를 미리 수강해 두었기에, 4월에는 사례강의로 복습하였고, 사례집을 반복하여 회독하였습니다. 저는 동차 때는 사례집만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를 보아도 실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목차를 구성하고 조합해야 하는지 막연하였기 때문에 사례집을 보았습니다. 문제를 읽고, 해당 목차를 먼저 외운 후, 키워드를 외우는 방법으로 회독수를 계속 늘려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 심지어 강사님도 기본서를 봐야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매우 고민도 많았지만, 도저히 저에게 맞지 않아 사례집을 끝까지 밀고 나간 것이 결국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본서와 사례집 모두 본다면 좋겠지만, 동차처럼 시간이 부족할 때에 사례집이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하면 사례집 한권을 마스터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판례는 물론 의의 취지도 정확하게 암기가 안 되어 있었지만, 정답이 거의 맞았고, 목차를 잘 나누어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3) 특허법

기초gs, 실전gs를 수강했습니다. 기초gs 수강할 때에는 기본서 암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미리 메일로 논점을 러프하게 여쭙어 본 다음에, 해당 파트를 열심히 외워갔습니다. 중요 논점이 gs로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요한 내용 위주로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실전gs에서는 기초gs 논점 이외의 것들만 외우면 되었기에 암기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암기는 스테디를 통해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분량을 정하여 암기한 후 해당파트의 내용을 백지에 그대로 써보고 바꾸어 채점해보는 방법으로 암기했습니다.

4) 상표법

판례집 위주로 판례를 분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판례의 구성을 보면 ‘의의 취지’ 부터 시작하여 ‘판단 기준’ 및 ‘사안’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판례에 볼펜으로 ①의의/취지, ②판단기준, ③사안으로 나누어 적어놓았고, 실제 답안에도 이런 목차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자생초 판례의 경우 ①전체관찰 원칙, ②요부관찰, ③분리관찰과의 관계, ④요부판단, ⑤사안과 같은 식으로 판례에 볼펜으로 메모해 두고 회독했습니다. 회독을 반복 하니 자연스럽게 의의/취지 및 판례의 문구와 더불어 목차도 암기가 되었습니다.

5)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은 3가지만 신경 쓰면 50점 넘는 것은 문제없다고 자신합니다.

암기, 사례대비 및 쓰기연습이 그것입니다. 암기에는 단문과 판례 및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판례는 문구를 정확히 외울 것까지는 없으나 논점과 결론은 확실히 알아 두어야 하며, 심사기준 또한 모두 볼 필요 없이 예시들만 눈에 익히면 됩니다. 단문암기가 가장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조문을 활용하고 특허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는 식으로 암기해 나가면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대비 또한 해야 하는데, 이는 gs문제를 풀어보면 해결되는 부분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이고, 쓰기연습은 민/특/상을 공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획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문암기를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서 공부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라. 기득 (만:65/ 특:51.66/ 상:51.33/ 다:57.33)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민	단권	기초			실전			실전	실전	실전	
특		실무		기초		실전	실전	실전		콜라보	
상			실무	기초	실전	실전	실전		실전	콜라보	
다								실전		실전	

1) 시기별 공부

- (1) 9,10월에는 민사소송법만 공부하였습니다. 요약서에 단권화를 하며 동시에 암기도 진행하였고 계속 요약서를 반복 회독하였습니다. 4,5월에는 사례집을 통해 목차 추출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 (2) 특허의 경우 11월부터 기본서를 보기 시작하였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월부터 이었습니다. 1월에 출간된 특허 기본서의 목차 구성과 가독성, 디자인 등이 저와 맞아 이때부터 가속도가 붙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특허 기본서를 회독하였고, gs에서 나누어 주는 Top10 판례와 최신 판례를 보았습니다.
- (3) 상표는 12월부터 시작하였는데, 다소 늦게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12월에 pjh 변리사님 기초gs를 수강하기로 계획하였기에, 미리 메일을 보내었더니 ‘제 수업 전까지는 상표공부하지 마시라’ 고 단호히 말씀하셔서 안심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가장 막연했던 상표 공부에 박진호 변리사님 기초gs를 통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명확해지게 되었습니다. 계속 상상상표법을 회독하고 암기하였으며, 5월쯤 판례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 (4)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문암기가 가장 큰 중요성을 차지하기에, 4월 전에는 하루에 적은 시간만 투자하여 조금씩 암기하였습니다. 이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암기하고, gs를 통해 사례를 대비하고, 판례와 심사기준을 틈틈이 보았습니다.

2) 3월, 5월

전체적인 공부 계획을 세움에 있어 3월과 5월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월 실전gs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자는 것과, 5월에 완성된 실력을 만들어 놓자는 것이었습니다.

3월이면 실력 있는 3시생도 유입되고,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저 또한 3월까지 암기와 쓰기연습을 최대한 많이 해두어 실전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목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까지 실력을 완성시켜 놓고 이후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자는 마음으로 전체적인 공부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3월에 괜찮은 성적을 받게 되면서 스타트를 잘 끊을 수 있었고, 이후에도 성적에 대한 큰 부담감 없이 공부해서 계속하여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민사소송법

요약서에 계속해서 단권화를 진행하였고, 3월까지의 요약서만 반복하여 회독하였습니다. 4월 이후에는 사례집 및 핸드북도 병행하였는데, 빠르게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법률저널에 올라오는 교수님의 중요판례 5년치와, 최신판례를 보았습니다.

단권화는 동차 때 보았던 사례집의 목차와 구성이 익숙하였기에, 요약서의 목차를 화이트로 지우고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목차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표현도 제게 익숙한 것으로 고쳤으며, 판례의 경우 좀 더 길게 쓸 수 있도록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파트는 아예 직접 타이핑하여 새로 붙여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특정 논점에 있어 gs나 사례집에 있는 목차를 요약서의 해당파트에 적어두었습니다. gs에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목차를 요약서에 적어두는 과정을 반복하고 나니, 요약서를 회독할 때 자연스럽게 목차까지 외우게 되어, 나중에는 비슷한 논점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목차를 떠올려 논점을 누락하지 않고 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티커를 활용하여 요약서에 gs에서 출제된 논점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기본서에 표시해 두니 gs에 많이 출제된 파트는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책을 회독할 때 올해 강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하며 강약 조절하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특허법

특허의 경우 1권만 열심히 보았고, 따로 다른 책을 참고하여 단권화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민사소송법처럼 gs에 나온 문제의 목차를 책에 모두 적어두어, 특정 논점이 나왔을 때 목차를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에 단권화 내용은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단권화가 완성된 특허 기본서와 Top10 판례, 최신 판례를 시험 전까지 반복하여 회독했습니다.

특히 판례를 원문을 찾아서 읽어보았던 점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그냥 심심해서 판례 원문을 찾아 읽어 보았는데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니 암기 또한 자연스럽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판례는 CASE NOTE를 통해 읽어 보았습니다.

5) 상표법

상상상표법을 기본서로 삼고, 길 상표법의 내용을 보충하여 단권화 했습니다. 그 외의 단권화 내용도 민사소송법 및 특허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저는 시험 전 까지 상상상표, 판례집 그리고 최신판례를 반복하여 회독하였습니다. 판례집을 볼 때에는 판례가 실시한 순서를 기억하도록 노력하였고, 최대한 원문 그대로 암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기본서인 상상상표를 회독할 때에는, 책을 꼼꼼하게 정독하기 보다는, 특정 파트에 어떠한 판례와 논점이 있는지 떠올리는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6) 디자인보호법

동차 공부방법에 적어 놓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대비하였습니다.

기득 때 공부하며 느꼈던 점은,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조문을 활용하면 암기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는 점, 특허와 연동해서 암기하면 또 다시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작정 암기하려고 한다면 굉장한 부담이 되는데, 고득점을 요하지 않는 시점에서 요령껏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특/상 공부로 인해 쓰기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 있었기에, 적정 수준만 암기하여도 보기 좋게 글을 쓸 수 있었는데, 다만 사례대비는 직접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처음 접한다면 실수 하고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편 일요일 시험 전날에는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기도 바빠 도저히 디자인보호법을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토요일에 특허/상표 시험이 끝난 후 독서실로 오는 길과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틈틈이 단문을 보았습니다.

7) 쓰기

9월부터 5월까지 매일 1~3시간씩 gs쓰기 스티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씩 쓰다가 이후 2,3시간으로 늘려나갔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쓰기를 하면서 필속 또한 실제로 빨라졌고, 또한 거의 모든 gs를 풀어보게 되다 보니 문제가 ‘거기서 거기’ 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거기’ 라는 느낌을 받게 되자, 이후에 접하는 gs문제들을 보아도 ‘아 또 나왔네’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대부분의 문제가 익숙해지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중에는 대부분의 문제와 논점이 익숙해지고 쓰기 스킬이 생기자보니 목차를 굳이 잡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이 되었고, 그 결과 더 많은 시간을 쓰기에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쓰기 스티디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번 실전처럼 써보는 것이었는데, 저는 친구와 다 쓴 답안지를 바꾸어 채점함으로써 긴장감을 가지고 매번 실전처럼 써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최선을 다해 쓰게 되고, 직접 채점을 해보니 교수님들도 어떤 방법으로 채점하시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바꾸어 채점해 보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8) 암기

암기를 초반부터 게을리 하지 않고, 요령피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기본서를 회독할 때마다 계속해서 열심히 암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암기의 필요성을 1월에 절실히 느꼈고, 노트를 사서 책상 옆에 항상 두고, 공부하면서 잘 안 외워 진 부분은 바로바로 노트에 적어놓았습니다. 노트는 출퇴근 시에 항상 손에 들고 다니며 암기하였고, 잠자기 전에도 노트에 적힌 내용을 암기하며 잤습니다. 이런 식으로 7월 시험 볼 때 까지 계속해서 정확히 외우지 못한 것들을 노트에 적고 암기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암기에 신경을 많이 썼음에도 5월이 되어도 여전히 암기할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6월이 되자 기본서 내용이 많이 암기되고 있음이 느껴졌고, 이때부터는 기본서를 독서대 위에 올려두고 책상에는 백지를 놓은 후 해당 파트의 내용을 목차부터 키워드까지 그대로 외워서 적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자 7월에는 정말 기본서를 다 외워버렸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암기가 되었음이 느껴졌습니다.

9) 회독

5월까지의 gs 진도에 맞추어 한 달에 1회독 하였고, 6월부터 회독수를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로 1회독 목표일수를 정하지는 않고 회독하였고, 계속해서 조금씩 줄여갔습니다. 민소는 9일-8일-7일-5일, 특허는 8일-6.5일-6일-3일, 상표는 9일-6일-5일-2일, 디자인은 9일-6일-5일-3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시험 전 마지막 3주의 경우, 매주 시험 본다는 생각으로 다음의 스케줄대로 반복하였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민	1회독				2/4회독	2/4회독	(시험)
특	1회독			gs/실무	1회독	(시험)	
상	1회독		판례집	gs/단문	1회독	(시험)	
디	1회독+판례+심사기준				판례/심사		(시험)

10) 멘탈관리

주변에 생각보다 멘탈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고생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크게 슬럼프가 오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유를 생각해 보면 1주일에 하루(또는 반나절)는 무조건 쉬었던 점, 정해놓은 일정대로 규칙적으로 생활했던 점(07:00 공부시작 ~ 21-22:00 독서실 나오기)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공부가 잘 되지 않고 슬럼프가 오려던 경우는 아마 공부가 잘 풀리지 않거나, 하고 있는 공부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럴 때는 합격자 분들이나 강사분들에게 메일로 상담을 받거나, 면담을 요청하는 식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종합반에서 공부하며 친구들과 매일 함께 점심을 먹고 생활을 같이 하였는데, 그 점도 저를 외롭거나 심리적으로 힘들지 않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마. 소결

2차 시험이 끝난 후, 집을 나설 때 더 이상 손에 노트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었던 점, 한동안 듣지 않았던 음악을 들으며 이동할 수 있었던 점, 더 이상 커피를 졸음을 참고 공부하기 위해 마시지 않아도 되었던 점, 카페에 가도 더 이상 공부하기 좋은 넓은 책상을 찾지 않아도 되었던 점 등 때문에 기분이 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편 2차 공부를 해보고 느낀 점은, 정말 누구든지 해낼 수 있는 시험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비상한 머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남들은 모르는 거창한 공부방법이 필요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단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이 암기해서 기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반복하여 노력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합격하고 싶다는 간절하고 진실 된 마음으로 매순간을 보내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따라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시고 힘내시라고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5. 마치며

스스로 공부방법에 대해 고민도 많이 했었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점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하려다 보니 수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부족한 수기지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참고하시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변리사 시험 진입에서부터 포기 of 순간을 이겨내고, 큰 슬럼프 없이 무사히 수험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도와 준 지인이 에게 감사드리고, 2차 공부를 함께 하며 너무나 큰 도움을 준 스터디원 종범, 병권, 현우, 다운, 희선, 지혜누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종합반을 담당해주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수업 내외적으로 많은 도움 주신 학원 강사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수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부방법 및 수험생활, 또한 그 외적으로도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jungonna20@gmail.com 메일 주시면, 부족하지만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